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교환학생 파견 후기

다음 분들에게 제 후기를 읽기를 추천 드립니다.

1.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는 수의예과 후배님 - 교환학생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2.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는 이공계 전공자 - 실험/레포트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3. 호주 및 대양주 권역에 관심있는 교환학생 지원자
4. 이 외 교환학생에 관심있는 모든 지원자 분들

Adelaide 그리고 Australia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한 거대한 대륙-섬 나라 입니다. 호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특징적인 생물 다양성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3대 미항으로 유명한 시드니의 '달링하버', 후크 선장이 호주 대륙 발견 당시 거대한 암초 덩어리에 막혀서 더 진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한 퀸즐랜드의 '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황량한 아웃백에 위치한 거대한 암벽덩어리 울룰루와 그리고 코발트 색의 바닷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멜버른의 '더 그레이트 오션 로드' 까지, 호주는 진정 환상적인 여행지입니다. 실제로 멜버른(1) 을 필두로 호주의 주요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플린더스 대학교는 호주에서 주요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Adelaide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Adelaide는 South Australia주의 주도로서 이곳의 시민들은 호주의 주요 도시 중에 유일하게 영국의 죄수(Convict)를 수용하지 않은 도시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로 제가 만난 Adelaide 시민들은 매우 친절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Adelaide는 교환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선택 중 한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친절한 사람들, 안전한 치안, 안정된 물가, 잘 구축된 대중교통 등 한 학기에서 많게는 일 년을 살 학생이라면 분명 Adelaide는 많은 장점을 가진 도시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 강의의 혁신 - FLO

호주 Flinders 대학교에는 Flinders Learning Online (이하 FLO)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FLO에는 수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파견 시에 가장 많이 접속 하게 될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FLO의 가장 큰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온라인 강의의 지원입니다. FLO 웹페이지에는 자신이 수강 신청한 과목의 강의 계획표가 있는데요, **모든 강의가 현장에서 녹화가 진행이 되고, 강의 완료 후 한 두 시간 내로 FLO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강의 (Lecture)는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FLO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런 이유로 학기 중간 쯤 되면 수강 신청 인원은 250명인데 실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40명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만 강의가 아닌 Tutorial, Workshop 그리고 Practical은 출석이 의무인 경우가 있으며 녹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FLO에는 각 과목마다 자유게시판 (Discussion)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학생 - 학생, 학생 - 교수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유용한 정보가 자주 업데이트 됩니다. 일례로 매주 보는 Weekly quiz 같은 경우에는 종종 수업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었거나 아예 학습하지 못한 문제들이 출제되곤 합니다. 그럴 때 이 자유게시판에 가보면 유사한 문제를 가진 학생 혹은 교수님들이 글을 올리고 그 글에 댓글들이 달리면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Flinders 대학교는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좋은 점수를 맞는 것이 나의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Discussion을 자주 모니터링하는 것이 고득점을 따는데 도움이 많이 되며, 호주 대학 시스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학점

※ 아래 정보는 인문계 전공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점과 관련해서는 Flinders 대학교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격하다는 의미는 채점 기준이 매우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교환학생의 장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 점이 저는 ‘학점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점인정이 되는 만큼 졸업 연도가 늦춰지지 않는 점은 분명 장점이지만 졸업장에 남을 학점인 만큼 교환학생으로서 학점도 채길 수밖에 없는 점은 아무래도 부담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교환학생 파견 기간 동안 자신이 원했던 삶은 뒤로 밀려나고, 도서관에서 원서만 읽다 올 수도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지원할 시에는 꼭 이 부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자체의 난이도를 제외하더라도 언어 난이도가 핸디캡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최상위 학교 지원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에는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원서만 읽는 것은 분명 본교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Format of each form of assessable work	Proportion of total marks	Deadlines for submission ¹	Penalties to be applied if deadline is not met	Date work is expected to be returned to students
Draft practical report including all tables, figures and example calculations.	5%	Electronic submission by 11.30 pm Friday October 18, 2013	Lower 0.25 marks for every 24 hours late. Absence at practical sessions is compulsory.	2 weeks after submission
Final practical report	10%	Electronic submission by 11.30 pm Friday Nov 1 2013	Lower 0.25 marks for every 24 hours late. Absence at practical sessions is compulsory.	2 weeks after submission
Tutorial quiz 1	3%	At the end of your registered tutorial session in Week 5	A mark will be available in Week 6. Attendance at tutorial sessions is compulsory.	Next Day
Tutorial quiz 2	3%	At the end of your registered tutorial session in Week 7	A mark will be available in Week 8. Attendance at tutorial sessions is compulsory.	Next Day
Skill test - Laboratory Notebook	5%	Random checking during practical classes	No marks	Immediately
Skill test - Planned DNA isolation	5%	Random checking during practical classes	No marks	Immediately
Geography Quiz-Lecture Content Week 3, 4, 6, 8, 10 and 12	10%	Open and class in Week 3, 4, 6, 8, 10, 12	No marks	When Quiz closes

Format of each form of assessable work	Proportion of total marks	Deadlines for submission ¹	Penalties to be applied if deadline is not met	Date work is expected to be returned to students
End of semester exam	10%	November exam period	Supplementary exams as governed by university policy. It is compulsory to pass the exam to pass the topic.	

¹ If deadlines may be granted by a final coordinator where the following criteria apply:

• the student has made a written request for an extension prior to the due date for the assessment item

위는 제가 수강했던 한 과목의 SAM 캡처 사진입니다. Flinders의 많은 과목들은 중간고사가 없으며, 기말고사가 한 학기의 모든 수업 내용을 포괄합니다. 성적 처리 방법을 잘 보시면, 자잘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본교와는 다르게 Flinders는 시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위 과목은 시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이며, 제가 수강한 다른 과목은 기말고사의 비중이 30%와 40%에 불과했습니다. 즉, 시험 하나를 만점을 맞아도 다른 항목들을 무시하면 절대점수 50점에 미달하게 되어 Pass가 안됩니다.

Flinders에서 고득점은 Practical이라고 불리는 실험 시간이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연속 3시간의 Practical 수업은 실험노트, 실험기술 그리고 레포트 작성을 요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포트 작성인데요, 과목에 따라서 매 Practical 마다 독립적인 레포트를 작성해야 하기도 하고, 한 학기를 포괄하여 작성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전체 결과를 바탕으로 레포트를 작성하는 수업이 조금 더 수월했는데, 그 이유는 위 SAM에서 나온 것처럼 한 번 이상의 제출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위의 경우는 Draft Report는 Method (실험방법)과 Result (실험결과)만 작성하고, Final에 나머지 Introduction과 Discussion을 삽입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Draft Report 제출 후에 Feedback을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Final에서 한꺼번에 점수를 잃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학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은 채점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레포트가 길고, 시험 답변이 길어도, 의도에 맞는 ‘핵심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면 점수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일례로 제가 노느라 바빠서 짧게 쓴 레포트는 95점을 받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길게만 쓴 레포트는 70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성실’ 하게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채점자가 가상하게 성적을 부여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외국에서는 ‘성실’은 채점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레포트

※ 아래 정보는 인문계 전공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플린더스 대학교는 의학, 생명공학, 간호학 등의 방면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Adelaide의 주요 고등 교육기관 중 하나입니다. 저는 Flinders University에서 주로 생물학 관련 과목을 수강했는데요, 수업 자체의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시스템적으로 본교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문계 전공 지원자에게도 해당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자연계 전공자 분들에게는 수준 높은 레포트 작성 실력이 요구됩니다. 모든 이공계열 과목의 레포트는 실제 논문 수준의 형식과 서식이 기대되며, 레포트는 강의와 함께 진행되는 실험 시간의 연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Rubric'이 제공되기 때문에 교수진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Reference 부분이었는데요, 출처는 어느 교수님이든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플린더스 자체적으로 표절 검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표절은 과학 전공자로서 선행 과학자의 연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매우 강한 어조로 학생들에게 그 중요성을 각인시킵니다. 그럼 출처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목마다 다르지만 레포트마다 최소 10개 정도의 출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말이 10개지, 모든 과학적 사실(Fact)에는 선행 연구자료가 뒷받침 (Support) 되어야 하며, 하버드 대학교 서식으로 출처표기 (Referencing)이 되어야 합니다. - 하버드 대학교 식 레퍼런싱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파충류 관련 레포트에서는 '파충류는 변온동물이기에 온도가 중요 요소이다' 라는 문장 하나에도 1) 파충류가 변온동물이라는 연구 자료 2) 변온동물과 온도의 관계 에 해당하는 선행 논문이 출처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출처는 오직 인용 논문 (Peer-reviewed journal)이어야 하며 책 (대학 서적 포함) 인터넷, 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의 일체의 그 외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레포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개의 전문 논문 - 심지어 영어 -을 읽고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목마다 한 학기에 요구하는 레포트의 갯수가 다르지만 학점을 기대하신다면 레포트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플린더스 대학교는 황금비율로 점수를 분배를 해 놓아서 레포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며, 절대 국내처럼 시험 잘봐서 커버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절대평가여서 50점을 넘겨야 하고요, 많은 과목들이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출석점수는 없고요, 대부분의 시험이 30~40%선임을 고려할때, 레포트는 고학점의 핵심입니다. 레포트를 버리면 기말고사에서 만점 받아도 에프입니다.

- Implications for defence against disease in stressed animals - How this change(salinity) may be relevant to the field you are discussing (oysters, humans, animals)					
Effective use of literature - to compare results e.g. hypo/hyper salinity effects on cells as expected? - Support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s e.g. Other studies showing effects of stress on immune function – particularly phagocytosis - May refer to oyster tolerance to broad range of salinities OR - Potential usefulness of the techniques more broadly in monitoring animal or human health	5				
Limitations & future research - e.g. poor microscopes difficulty in visualising haemocytes - difficulty in extracting haemolymph and possible contamination with seawater etc could explain low cell densities - possible bias towards phagocytosing cells - limited replication (but note if they g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then the replication was adequate to detect a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 alternative methods for accurate analysis – e.g. flow cytometry	5				
Clear conclusion - should be the last paragraph - highlights the main findings & significance - Should relate back to the original aims	5				
References /10					
Citations & reference list complete - Citations used where required - all cited references listed - no extra references that are not cited in the text - formatted appropriately	5				
Quality of references - use of peer-reviewed papers rather than websites - integrating ideas/information from several sources - not expecting a huge reference list this time – but should have at least 5 papers for full marks	5				
Appendices /10					
Provided end of the report - Used effectively e.g. for raw data (not necessary but if included at all it should be here) - statistical output - testing assumptions for the stats	5				
Haemocyte calculations Clearly detailed and correct	5				
Response to feedback /5					
Thoughtful and effective response - To their specific feedback if it was available in time - OR the generic feedback	5				
OVERALL MARK	98				

레포트를 잘 작성하기 위한 방법은 위에서 말했듯이 'Rubric'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제가 제출한 레포트에 대한 Rubric Feedback중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캡처 사진을 보시면 Discussion부분에서만 어떤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야 하는지 너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있었습니다. Flinders에서는 교수님들이 위와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레포트를 과제를 내주십니다. 교수님들이 정말 자주하는 하소연이 왜 채점 기준을 줘도 학생들이 다 자기 멋대로 써오느냐는 것인데요, 절대 양으로 승부해서 감정에 근거한 점수를 받으려고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양이 아무리 많아서 내가 이 정도 노력했다로 어필하려고 해도, 정말 'Rubric'에 나타난 항목에 근거해서만 점수를 줍니다. 즉 Rubric에 근거한 점수표에 표기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점수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망각했다가 정말 말도 안되는 점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Flinders University에서 과학 과목의 레포트는 곧 논문입니다. 학교 생활 당시에는 일주일동안 써도 못써서 술 마시고도 쓰고 별별일이 다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확한 논문 작성 법을 배울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6년간 대학을 다니면서 앞으로도 논문 작성에 대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울 기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데요, 교환학생을 가서 본교에서 배울 수 없는 특징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너무 겁 먹지 마시고요, 제가 레포트에 자세하게 서술한 점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숙사

마지막으로 기숙사와 관련한 후기입니다.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다음 선배님들의 이전 후기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선배님들의 후기 부분에서도 특히 기숙사 부분에 흥미를 느끼고 Flinders 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초롱

선배

후기 : http://cnuint.cnu.ac.kr/sub01_05_02/articles/view/tableid/experience/type/eNortjK3UiouTepKTS5RsgZcMCHtBI4./keyword/eNortjKzUno7Y8ebxXuUrAEoHwYl/id/1157

한단아

선배

후기

:

http://cnuint.cnu.ac.kr/sub01_05_02/articles/view/tableid/experience/type/eNortjK3UiouTcPKTS5RsgZcMCHtBJ4./keyword/eNortjKzUno7Y8ebxXuUrAEoHwYl/id/2264

호주 Flinders 대학교의 기숙사는 University Hall 과 DJ Village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두 곳에서 다 살아봤는데요, University Hall을 구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University Hall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행사가 있으며, 역동적이란 점입니다. 한 학기에 (600~700만원)에 해당하는 학비는 호주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University Hall은 대학생활을 즐기려는 저학년이나 신입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즉, University Hall 거주 학생들 자체가 친구들을 새로 사귀고 누구를 만나는데 상당히 개방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J Village에서 살다가 Uni Hall로 이사를 가서 첫날 혼자 밥을 먹는데 다른 학생들이 먼저 와서 자신들이랑 밥 먹자고 먼저 다가와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제 방에 와서 같이 밥먹고, 어디 나가면 같이 가자고 제안하고요. 특히 이제 술을 먹고 나면 정말 이게 호주식 friendly구나 싶은데요, 식당에서 몇 번 본 안면만 있는 학생들이 소리를 껍뻍 지르면서 자기랑 놀자고 합니다. ㅋㅋㅋㅋ 아 저는 호주 애들이 와인 조금에 그렇게 신이 나서 노는게 정말 신기했어요. 사실 University Hall에서 만난 학생들은 술을 먹지 않아도 항상 웃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같아서 조그마한 것에도 그냥 빵빵 터집니다. 그런 호주식 여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University Hall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요. 물론 University Hall이 DJ Village에 비해서 150~200만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급식이 나오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로 DJ Village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차피 스스로 음식 만들다 보면 재료값이 그에 육박하게 지출됩니다. 호주 기숙사비가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저는 그 값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University Hall은 거주 학생들을 위해 정말 다양한 파티, 공연, 게임 등을 기획하며 음식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매일 같이 세 개의 메인 요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파스타나 감자칩등 사이드 메뉴 10가지로 구성된 샐러드 바가 있으며 디저트는 신선한 과일과 푸딩 혹은 케이크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연회가 있는데요, 이 때에는 와인이 서빙이 되며 20가지가 넘는 디저트와 초콜릿 분수등이 준비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기말고사 한 달 전부터는 저녁뿐만 아니라 아침과 점심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호주식 고기파이나 수프 치즈 등이 서빙 됩니다. 파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의 Tonsley 호텔에서 매번 독특한 테마 - 예) Gender Bender (남녀 크로스드레스), Sea world (바다생물되기 - ex 불가사리) -로 진행되며 시내 3~4곳의 술집과 계약을 맺고 하룻 밤 사이에 그 술집들을 돌아다니면서 기숙사생들끼리 술을 마시는 Pub Crawl, 2학기 파견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정장 및 드레스를 입고 해변가 호텔에서 모여 일 년을 마무리하는 Hall Ball까지 정말 굵직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다 언급하지 못한 수 많은 행사가 University Hall에는 많습니다. University Hall은 분명 큰 만족감을 주는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며..

처음에 후기를 쓸 때에는 재밌는 스토리텔링 형태로 작성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너무 정보 전달 위주로 딱딱하게 쓴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제가 후기를 읽을 당시에 이공계열 전공자의 후기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서, 이공계의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자 한 의도였으므로 다른 실질적인 삶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 대한 안전 문제를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본교 지원자들이 영어권 파견지로 미주권을 선호하는데요, 호주 또한 매력적인 대안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호주는 우선 한반도와 시간대가 유사하기 때문에, 시차적응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과 연락하는 데에 용이합니다. 또한 호주는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역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기능이 좀 더 뛰어납니다. 시설 접근성 외에도, 차가 없는 교환학생들에게 대중교통은 매우 중요한데요, 뉴욕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도시가 제한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호주는 주요 5개 도시권만 투자하면 되기에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비록 미국 방문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구지 호주권역을 지원할 이유는 없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거주 경험이 있으시다면 호주 지원을 추천 드립니다.

아무쪼록 교환학생에 관심 있는 지원자 분들의 성공적인 합격과 파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학기 호주 Flinders 대학교 파견자 김도현

2014. 2. 3.